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부평구(갑)선거구 후보

책자형 선거공보

국민의
밥그릇을
챙기겠습니다!

반듯한 정치, 잘사는 부평!
1 정유섭

왜 “정유섭”입니까?

깨끗해서 좋다

24살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27년 공직동안 단 한 번의 부정비리 의혹도 없었습니다. 장교로 군복무를 할 수도 있었지만 보편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원입대하여 육군 3사단 백골부대에서 병장으로 만기제대했습니다.

실력이 있어 더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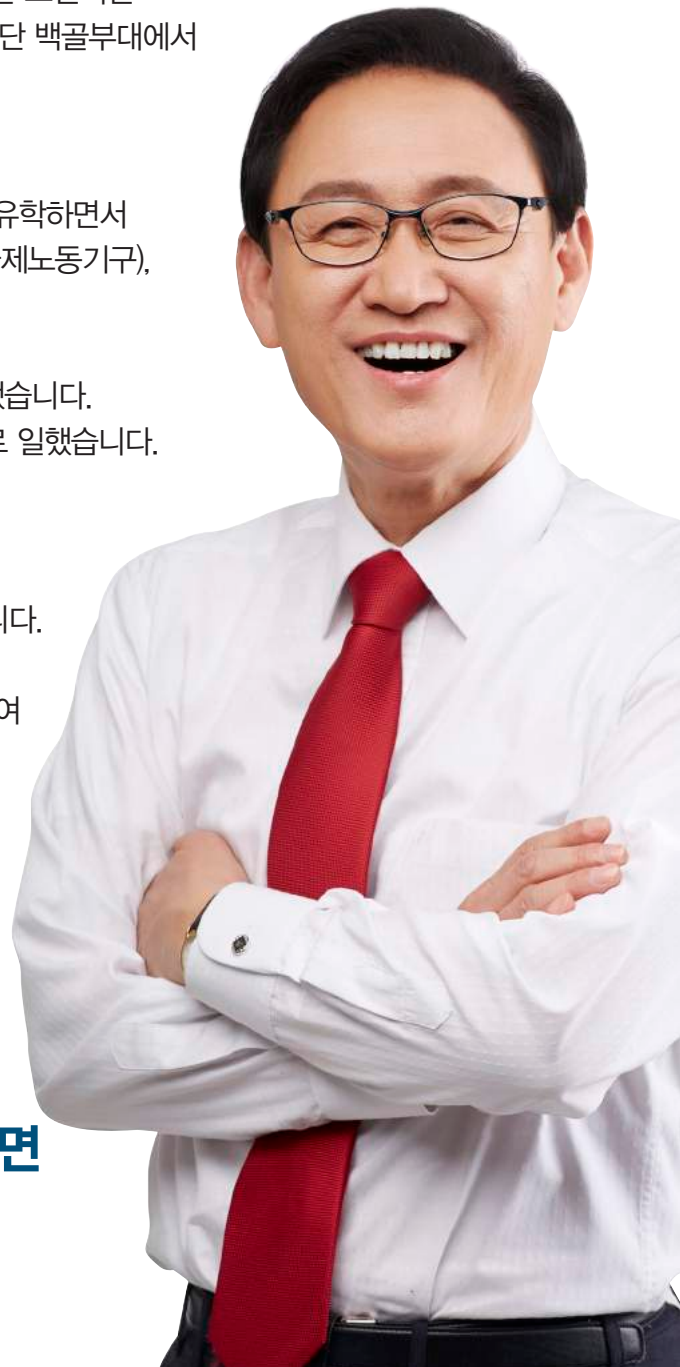
독일 정부 장학금으로 정치와 복지 선진국 스웨덴에 유학하면서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IL0(국제노동기구), 주미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일했습니다. 건교부 광역교통기획관으로 지하철 7호선 인천구간, 인천 지하철 2호선, 인천 광역급행버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일했습니다.

부평을 잘 압니다

부평에서 초·중·고교를 다녔습니다. 부평 사과약국 약사였던 아내와 부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를 낳고 키운 부평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부평 미군기지를 명품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참여 위원장”으로 작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 해왔습니다.

**구태 정치, 낡은 정치에 물들지 않은
신진 정치인 정유섭입니다.**

**부평 발전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를 생각하면
“정유섭”입니다.**



이번에는 “야당과 국회”를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고 깊습니다.

민생을 외면하는 정쟁과 탈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선, 4선 내세우지만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책임정치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낙후되어가는 부평, 자리만 차지하고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
오랫동안 정치한 사람의 책임이 큼니다.
더 이상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경제 외면, 안보 불감, 민생과 부평 발전에 무능한 야당에 더 이상 기댈 수 없습니다.
발목잡기 정쟁과 지긋지긋한 집안 싸움으로 분열한 야당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치와 정치인을 바꾸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평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치를 바꿀 반듯한 인물로
바꾸어 주십시오.**

**부평을 발전시킬 새로운 일꾼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정쟁 야당 NO!
무능 국회 NO!**



정유섭은 다릅니다!

27년 경력의 정책 전문가 정유섭입니다

국익과 민생을 지켰습니다.

한일 수로회담 수석대표, 한중경제수역(EEZ) 획정회담 대표로 국익을 지켰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장 시절 일본의 아베 수상(당시 관방장관)의 압박에 당당히 맞서며
독도주변 해양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월미도 발칸포 부대 이전을 성사시켰습니다.
인천항 노무체계 개혁을 100년 만에 성공시켰습니다.

국민의 밥그릇을 먼저 챙기겠습니다.

3대 규제(수도권 규제, 산업 규제, 기업 규제)를 풀어 일자리 먼저 만들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하도록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돈이 도는 부평, 잘사는 부평 만들겠습니다

부평을 인천 교통 1번지, 부평미군기지를 명품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GTX 조기 착공, 특급 호텔 유치, 부평산업단지 고도화 등
돈이 도는 부평을 만들겠습니다. 부평을 부평답게 하겠습니다.

반듯한 정치 꼭 하겠습니다.

막말, 갑질,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스웨덴처럼 스스로 알아서 일하고 성과로 평가받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

걸어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국익과 민생을 위해 정직한 땀을 흘려온 사람.
새로운 시각과 남다른 경험이 있는 사람.
일의 성과로 검증되어온 사람.
이번에는 정유섭입니다.

”



정치 바꿀 반듯한 인물, 부평 발전 새일꾼 정유섭이 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책을 읽던 아이

실향민이었던 부모님,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처럼 전쟁통에 무작정 남으로 내려와 부평시장에서 노점상과 그릇 장사를 하며 6남매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봄비는 시장에서 쫓그리고 앉아 정유섭은 책을 읽었습니다.



용기있게 일한 사람

국민을 위해 공적인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고려대 행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24살에 행정고시 합격했습니다.

정원 초과 · 화물 적재 불량 · 안전 불량 여객선을 현장에서 적발하여 선장의 면허를 취소하고, 배는 운항 정지시킨 겁 없는 공무원이었습니다.

27년 공직동안 단 한 번의 비리 의혹도 없었습니다.



부평의 반듯한 힘, 진짜 힘이 되겠습니다

부평 발전에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합니다.

실천하는 힘은 예산 확보의 능력입니다.

정치 싸움으로는 지역 발전 예산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부평 발전 책임지겠습니다. 검증된 일솜씨, 중앙 정부를 설득할 실력과 인맥은 정유섭의 힘입니다.



“

집안싸움으로 분열한 야당에게
부평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으로
부평발전 책임지겠습니다.

”

반듯한 정치, 잘사는 부평!
1 정유섭



현장 속으로 민생 속으로 골목골목 누비며 부평발전 책임지겠습니다

낙후되어가는 부평, 오랫동안 정치하며 제대로 일하지 않은 정치인의 책임이 큼니다.
지긋지긋한 정치 싸움으로 부평은 멍들고 있습니다.

3선, 4선 자랑하며 내세우지만 지역 발전 책임질 일꾼은 안보입니다.

과거에도 못한 일을 선거 시기에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현 정부와 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평을 인천교통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송도-부평-서울역 GTX 추진

GTX(대심도 광역고속급행전철)는 지하 40m에서 직선으로 시공되어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선진형 신개념 고속전철입니다. 부평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주파합니다.
기존역과 지하에서 연결됩니다.

정유섭은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기획관으로 지하철 7호선 부평 구간, 인천 지하철 2호선,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인천 광역급행버스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를 명품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명품 공원화

부평 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장으로
부평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받들고 있습니다.
작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미 부지의 70%는 공원화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를 교육,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명품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인천 시장과 협력하여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중앙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

할 일 많은 부평,
일 잘하는 정유섭입니다.

”

부평아 다시 꽃피어라!

시간이 멈춘 곳 부평,
저도 발길을 멈춥니다.
'응답하라 1988'의 세트장 같은 골목을 걸으며
내고향 부평에 한숨을 쉽니다.
풍요로운 평야의 뜻을 담은 부평(富平),
이름 뜻대로
풍요롭고 넉넉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오직 부평만 챙기는 부평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부평을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굴포천 자연생태하천 재탄생

굴포천은 부평의 도심을 가로질러 21km를 흐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현재 일부는 청계천처럼 복개되어 있습니다. 하수정비 사업을 거친 후
아름다운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주변 도심의 활성화 사업을 병행하겠습니다.
청계천 부럽지 않는 부평의 자랑으로 만들겠습니다.



십정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속 추진

10년을 끌고 있습니다.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십정동을 살기 좋은 주거명소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경찰종합학교 부지의 조속한 개발

방치되고 있는 경찰종합학교 부지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산곡동 통합예비군 훈련장 저지

도심 아파트와 학교 주변에 훈련장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국방부 소유 부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천 시장과 협력하여 주민의 뜻대로 꼭 훈련장 설치를 막겠습니다.



더 뜨겁게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서민경제, 지역상권, 소상공인 살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등 서민에 대한 이자율 경감을 비롯한 각종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하고, 전통 시장을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만들어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평, 안전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10만원 인상하겠습니다. 영유아종합센터 유치하겠습니다.
맛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방과후 안심학교 늘리겠습니다.
국가안전처에 전문가를 보강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부평, 노인이 편안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공원 등 공용 부지 활용한 지하 주차장 늘리겠습니다. 공공 도서관 더 만들겠습니다.
경찰학교 부지에 노인복지 시설 설립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노인 복지관의 기능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어르신 무상 예방 접종 확대하고, 노인 의료비 더 경감하겠습니다.

성장하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9년째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지 못하고 2만 달러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성장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불황입니다.
서민의 삶은 어렵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살고 경제 활동이 자유로운 나라, 일자리와 기회가 넘치는 나라,
법의 힘이 공정하게 살아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바로 선 나라 만들기에 앞장 서겠습니다.
선진국 대한민국 만들기, 부평의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십시오.

일하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텅빈 국회, 열리면 싸움만 하는 국회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건가요?
제가 유학한 스웨덴과는 너무도 다른 국회와 국회의원을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세비 삭감, 출판 기념회 금지 등 특권은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앞장 서겠습니다.

“
구태와 낡은 정치에 물들지 않은
신진 정치인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



4월 13일은 새로운 부평을 선택하는 날! 정치 바꿀 새인물, 부평 발전 참일꾼 정유섭입니다.



2011년 장남 논산훈련소 수료식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시절

충성! 백골부대 육군병장 정유섭!

조국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국민들은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평으로 다시 오는 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부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섭이 걸어온 길

- 부평동초 · 인천중 · 제물포고 졸
- 고려대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행정고시 22회)
- 육군 3사단(백골부대) 병장제대
- 스웨덴 월드마리타임대 대학원 졸
(과학석사 일반해양행정 / 1988.3.14~1989.12.3)
-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 근무(전)
- 주미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전)
-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기획관(전)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전)
- 인천대 · 인하대 겸임교수(전)
- 새누리당 인천 부평갑 당협위원장(전)
- 부평 미군기지 시민참여 위원장(현)

저서

- 2012년 “글로벌 인천, 글로벌 코리아”
- 2015년 “세월호는 왜?”

반듯한 정치, 잘사는 부평!
1 정유섭



부평시장에서 사과약국을 운영한
아내 김영보와 함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33 창성빌딩 6층
TEL. 032-514-4539 | FAX. 032-513-4539